

# 동중부 KCLC Newsletter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28:19-20)

## CLC-USA 소식

- 차기 의장 (현 미국 CLC의장: 김은애 크리스티나) 후보 및 임원 선출 준비
- 시노드 Orientation on Feb 24 and Presentation on March 15
- World CLC Day를 위한 기도 및 미사가 3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NKCLC-USA 소식

- 설헬레나 현 의장님(아틀랜타) 연임 확정
- CLC-USA의 2022 예산안 통과 (USA 전체 회원의 수입현황) 
- 아틀랜타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주제로 5월 12일 목요일 8:00 PM에 특강이 있습니다.

## 동중부 소식

- 3월 19일 가이드 모임 (공동체 방문, 가이드 모임과 교육의 방향 논의 & 숙고하기)
- 구동욱 미카엘 신부님과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순 붐피정이 4월 8일 (금) 8:00 PM에 있었습니다.



### 성경 읽기 전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 읽은 후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양성부 소식

- 프로젝트 177 나눔 보내기, 시노드 Theme & 성찰지와 요약본 배부 
- 새 양성부 임원: 강혜진 베로니카, 최경림 세실리아, 주인순 레지나, 원지성 마틸다 자매님 조인
- 차세대 리더 교육 파견 (NY KCLC 주관) : 원지성 마틸다 자매님
- 유기 & 갱신 서약 동반자 교육 파견 (NY KCLC 주관) : 이데레사 & 김선미 카타리나 자매님
- 새 지원기팀 시작 : 7명의 지원자와 함께 가이드 봉사자 박유스티나, H 데레사, 김선미 카타리나
- 재무: 3월 말까지 CLC-USA 회비 \$80 (수련기 회원 \$40), 동중부 연 회비 \$60 납부 요청
- 팀코디 교육: 팀장의 역할이란 주제로 3월 12일, 강사 서부 김은옥 크리스틴 의장님과 17명 참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나의 제자가 된다.”**

(요한 8.31)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하느님이 우리 삶에 ‘말씀’을 심어주셨다는 믿음은 확고하다. 나의 신앙은 그 하느님의 말씀과의 대화록이자 실천록이라는 믿음.

오늘 복음은 길고 되돌이표가 반복되어 지루함이 있다. 오늘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안에 머물기가 아닐까? 진리가 무엇일까 등의 추상적인 질문에 머물기가 아니라. 진리는 말씀의 열매중의 하나일뿐이니 열매가 열리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뿌리를 더 단단히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

과연 나의 하루의 삶이 말씀의 구체적인 표현인가? 간단한 질문이다. 그렇지만 깊은 질문이다. 그렇기에 복음의 삶은 참으로 어렵다. *From Fr. Macario 4/6/2022*

# 우리 CLC Logo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CLC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이다.

Letter **P**는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Christos를 나타낸다.

바깥으로 되어있는 **V** 표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색깔의 **V**는  
여러 민족 (다양한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Letter **M**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타낸다.



동중부 지역의 Logo의 의미는  
단단한 바위 안에서도 생명의 샘을  
숫게 하는 뜻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Resilience 를 나타내는 것 입니다.

[사진제공 - 김영숙 데레사 자매님]

## Project #177 열매 - 겨자씨팀

나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불을 놓고 내 안에서 그 분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킨 특별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 내적 외적으로 가난함의 진정한 의미인 단순함의 자유로움을 느꼈음.
- 나의 온세상이 주님 한분으로 꼭 찬듯한 느낌을 가졌음.

나에게는 어떤 회심이 필요합니까?

- 신앙인이 많은 지금의 세상에 존재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성찰과 회심의 필요.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차지한 모습에 대한 회심.
- 교회 가르침에 대한 회심은 있는 듯 하나 하느님 사랑으로 향하는 사랑 실천에는 부족한 나의 모습에 대한 회심. 그 부분에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깨어 노력하는 자세에 대한 성찰 필요.
- 처음 하느님께서 회심으로 건드려주신 그 자리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성찰. 그때 느꼈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는 일에 반성과 기도로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로 향해야 함에 대한 회심.
-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내 자신의 내적 자리에 대한 회심.
- 하느님께 의탁하며 나의 힘든 삶을 도리어 감사로 느꼈던 그 회심의 시간을 돌아보며 성찰. 하느님 사랑을 더 실천 하는데에는 더 깊은 내적 회심이 필요함도 성찰.

나는 사랑과 화해와 치유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아닌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 맡기면서.
- 영적으로 듣기, 영적으로 식별하기, 영적으로 행동하기로 깨어 의식하며 자신을 변화하면서.
- 세상에 필요한 일, 즉 생태환경, 가난한 이들, 복음화에 내가 먼저 한발짝 더 나아가는 삶으로.
- 나의 욕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며 그 부분을 넘겨주면서.
- 아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명한 공헌을 찾아내지 못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CLC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서약이 깊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일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라는 성사 생활의 변화, CLC 동료들과 함께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작든 크든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맡기려고하는 나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며 하느님께 감사드림.
- CLC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내 자신의 변화, 자연파괴에 일조함과 가난한 이에 대한 자책감, 더한 사명감으로 나누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성을 보면서.
- 가난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더한 관심과 성찰이 깊어지고 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음.
-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려는 노력을 하는 자신을 보며, 교회 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이 생김을 바라보면서.
- CLC 생활이 기쁘고 더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남을 보며
- CLC 삶의 방식이 몸과 마음에 기쁘게 익혀짐으로 종신 서약을 한 자신의 모습. 더 봉사하지 못한 미흡함에 대한 부분이 반성이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 CLC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공개적인 서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이미 CLC 삶의 방식으로 공개적인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봉사, 그리고 우정이 깊어지는 일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 이기심보다는 연민이 더 자라남. 일상에서 CLCer로서 생활하는 인식과 의식의 변화, CLC 공동체의 존재 가치와 일치되는 자신의 존재가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우정을 느끼며 서약이 주는 깊은 의미에 감사드립니다.
- 서약이 일상에서 버팀목이 되어줄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을 느낌. 서약을 통해 하느님과 구체적으로 만나며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신뢰를 가짐.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랑, 봉사, 우정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약으로 인해 하느님과 더 가깝고 예수님과 더 사랑스러운 친교가 이루어졌음.
- 서약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는 내가 해야할 일과 봉사에 게으르고 소홀하여 하느님께 잘못을 저지르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식이 자주드는 변화를 느낌.
- CLC에 서약한 일을 돌아보면 일생일대 천군만마를 얻은 하느님과의 약속의 의미. 세상에서 찾는 기쁨과 하느님 안에서 얻는 기쁨의 차이를 의식해보며 감사드립니다.
-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만나는 기

쁨,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된 서약에 감사드립니다.

CLC를 통해 맺은 우정이 어떻게 영적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나요?

- 공동체 모임에서의 나눔이 어땀었던 모두 영적 대화를 감사함으로 성찰. 앞으로는 이 폭넓은 우정이 자리하는 공동체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모임을 위해 하느님 안에서 더 충실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함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 CLCer 안에서의 영적 우정은 더 깊어진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불편에 대한 희망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큰 기쁨을 알게 해준 공동체의 우정에 짜릿하게 감사드립니다.
- 공동체 나눔에서 배움이 큰 것에 감사드리고 더한 애정으로 경청.
- 서로 나누며 많이 성장한 느낌을 갖게 해준 공동체 모임을 성찰하며, 공동체의 소중함과 기쁨과 감사를 느꼈음. 앞으로도 더 사랑하며 더 아껴주며 함께 우정을 나눌것을 희망함.
- 나눔을 듣고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느낌.
- CLC 공동체 안에서 얻는 풍요로움과 영적자산으로 인해 영적부자가 된 느낌을 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MAR-NKCLC, 겨자씨팀)



## Project #177 열매 - 평화팀

Projects 177 나눔을 통해 성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추구하시는 '사랑의 문명'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추구하며 실현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서약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 쉽게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랑, 나눔, 함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일수록 사실은 실천하기에 더딘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시노드'의 의미는 공동체의 모든이가 편안하게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신앙여정의 공동체의 모습이겠지요.

이렇게 자유롭고 새로운 느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움이나 죄의식 없이 바라볼 수 있고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인생의 길목의 상처들이 하느님의 은총의 섭리셨음을 깨달으며, 그 누구도 아닌 내 삶에 다가오신 주님의 고유하신 사랑의 성사이셨음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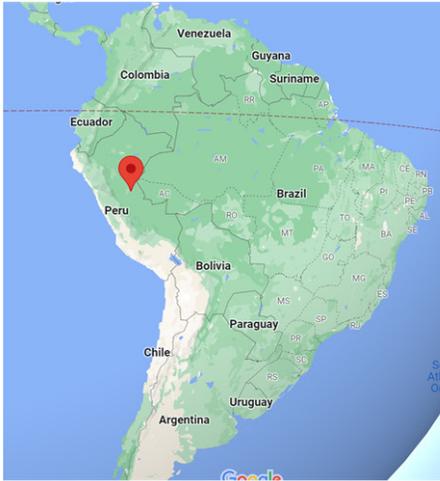
아직도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어디에 계신가? 수많은 의문과 번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죄악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하고 돌아야 하는 회심의 장소는 하느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삶을 따르며 함께 해드리는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 보다는 더 서로의 아픔에 귀기울이며 비난보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성령께서 들려 주시는 소리에 민감해지는 온유와 겸손한 사랑의 삶이 되어야겠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생기와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드리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사랑과 연민으로 다가오셨던 참 사랑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누군가 아파하는 그 타인의 상처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지음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MAR-NKCLC, 평화팀)



## 사도직 이야기 - 헤세드팀



## Peru mission

Peru medical mission으로 시작

**페루 미션**은 성 정하상 바오로 본당에서 뿌갈빠에 있는 성당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심 안젤라 자매님을 비롯해서 각각 의료, 한방, 미용, 주택에 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청소년 단체인 CYO도 주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뿌갈빠에 있는 The Caritas Sisters'of Jesus 에 있는 학교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드리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멋진 2층 건물을 지어서 클레오파 수녀님께서 봉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 주님이 주신 좋은 세상 우리 함께 지켜나가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구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요즈음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Composting Bin과 Compostable Food Bag 을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Bin 에 모으고 있어요.

세제나 케미컬이 묻은 음식물 쓰레기는 composting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생선이나 육류는 쉽게 악취를 만들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나 베이킹소다를 위에 뿌려주면 도



움이 됩니다. Bin이 가득차게 되면 묶어서, 다른 통에 2-3개 모았다가 Composting Center에 있는 Food 전용 Composting container에 버리고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Composting Center 은 구글에서 검색 가능하구요. Bin과 Bag 구입은 earthhero.com 또는 crate and barrel compost bin 을 참조 하세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Bin 과 Bag 사진 올려 드려요.

[김 연희데레사, 평화팀]